

# 제값받는 농업 실현 '앞장'

### 임실군, 지역특성 고려 품목 지정 신청접수... 농업인 참여 홍보 강화

임실군이 전북도 도정 핵심시책인 '농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과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27일 임실군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쟁비 등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2017년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라 농정 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임실군은 빠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해부터 품목 대표자

및 관계기관, 행정 등 회의를 통해 임실군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설명회 개최 등 정책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도비와 군비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품목은 생강, 가을무로, 임실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인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1,000㎡ 이상 10,000㎡ 이하이며,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해 실시된다.

군은 생강은 5월에, 가을배추는 9월 중으로 각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협과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농가 3자

간에 출하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통합마케팅 활성화, 정부 수급 안정 및 가격보장 지원책 등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군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한층 강화해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와 계통출하 물량 등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받는 농업 실현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경쟁비 증가 등이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87회 춘향제의 상징인 전국춘향선발대회 본선이 5월 2일(화)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 춘향제의 꽃 '전국춘향선발대회' 개최

### 내달 2일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제87회 춘향제의 상징인 전국춘향선발대회 본선이 5월 2일(화)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1957년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60년째 지속되고 있는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제는 물론 남원 홍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춘향선발대회를 통해 연

예계에 데뷔하여 춘향으로서 아름다운 자태와 춘향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역대 춘향을 살펴보면, 먼저 배우 박지영, 오정해, 윤순하, 이다혜, 장신영, 유연지, 강예슬, 김준형, KBS N이나 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진과 걸그룹 다이아의 리드보컬 조승희 등으로 브라운관과 스크린 등

방송무대에서 맹활약을 하며 춘향으로서의 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3년에는 82회 이후 선발된 춘향 24명으로 구성된 춘향봉사단 "예음회"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춘향의 사랑정신을 전국적으로 널리 선양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립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3년연속 선정

순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모집 공모에서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고양과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000여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난 25일 60개 도서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순창군립도서관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1천만원의 감사료와 더불어 3백만원 상당의 홍보비 및 교재비를 지원받았으며, 5월초 수강생을 모집해 18일부터 총2회 6개월간 인문학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강좌의 주제는 '찬란했던 순창의 판소리 복원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회 진행된다. 과거 순창은 판소리의 전당이

대했던 곳이었다. 순창출신 박유전은 서편제를 김세종은 동편제를 창시했을 만큼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교육적의미가 크다.

두 번째는 '고전에서 전통과 현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동양고전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가치를 나누고 우리 사회의 병폐와 치유방법 등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순창군립도서관측은 지난 2년간의 인문학특강이 단기 위주 단편적 지식 습득 과정을 진행해 군민들에게 인문학을 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더 깊게 보다 넓게 인문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인문 진흥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으로 심화과정의 강의를 집중 기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바래봉 철쭉제 교통안전 교육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바래봉 철쭉제와 관련, 단체인등 차량들이 늘어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운전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감지를 실시했다.

운전자들의 음주감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 대열운전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강조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나들이를 나서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또한 대형버스의 운행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실시

임실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종이팩(유유팩, 두유팩, 기타 음료팩 등)을 일정량 이상 모아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으나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70% 이상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유도도자 200ml 30매, 500ml 15매, 1000ml 10매를 가져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 말려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 가능하다"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번 사업에 주민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상록골프장과 MOU

남원시는 27일 이환주 남원시장과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이상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남원관광 활성화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와 남원상록골프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부문 노하우 공유,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활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남원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여건 조성과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상록골프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원관광 수요 창출과 5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달성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활기'

순창군이 사회주거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군은 올해 11개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은 136가구의 대상주택을 방문해, 낡은 집에 대한 구조안전 및 지붕보수, 벽체, 단열 및 창호, 보일러 등을 지난 한달 간 실측조사하고, 현재 31가구, 23%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5억4천4백만원(복권기금50%, 군비50%)의 사업비로 가구당400만원 이내 지붕누수, 벽체, 에너지 단열공사 등을 추진하며, 또한 올해는 복지사각지대의 노후주택 화재발생 가구에 신속한 집수리로 큰 호응을 받았다.

다. 지난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902호의 집수리를 꾸준히 진행한 이 사업의 성과에 화제가 발생해 주택 내부가 소실됐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내부공사에 임무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4월 동계면 김모씨(43)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주택 내부가 소실됐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내부공사에 임무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할 수 있었다.

황숙주 군수는 "노후 된 낡은 시골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참 좋은 순창, 군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시각장애인연합 임실지회 역사문화 탐방

한국시각장애인연합 임실지회(지회장 허용욱) 회원 40여명은 27일 충남 예산군으로 역사문화유역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역사문화탐방은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며 사회 친화력을 높이고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예산의 대표 유적지 운봉길의사사당, 추사 김정희 고택, 수덕사 등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

유산과 투쟁의 역사를 체험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폭 넓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역사문화 탐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권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허용욱 지회장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느끼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